

내가 느낀 ‘친구’를 그래피티로 표현하기

제 출 자: 박연우

지도교사: 이덕래

초록

이 논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친구’라는 존재를 그래피티 아트로 표현하여 자신들의 ‘친구’라는 존재를 떠올리며 생각하고 공감하고 나 또한 그래피티 아트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련서적이나 영상을 보고 그래피티의 대한 지식을 쌓고 전문가분을 뵈어서 그래피티 아트를 실습을 하며 실력을 쌓는 등 그림을 그리기 전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내가 느낀 ‘친구’라는 존재를 담은 작품 다섯 개를 완성했다. 간디인과 전문가 평가를 받았고 평가의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잘 드러난 것 같았지만 성능이 좋은 스프레이를 쓰지 않고 값이 싼 스프레이로 작품을 만든 것이 대부분이라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 이번 논문을 통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조금 더 다가갔고 발전한 것 같았다.

목차

I. 서론	(4) 고맙지만 부담스러워
1. 동기 및 목적	(5) 나를 채워주는
2. 연구방법	3) 작품과정
1) 참고서적 및 영상	(1) 방문 및 탐방
2) 전문가 중간 피드백	(2) 작품과정 사진
(1) 평가받은 그림	
(2) 평가 내용	
II. 본론	III. 결론
1. 그래피티란	1. 논문을 마치며
1) 그래피티의 정의	1) 논문 총평
2) 그래피티의 용어 및 종류	2) 고마운분들
3) 그래피티 기법	2. 작품평가
4) 그래피티 용어	1) 간디인 평가
2. 그래피티 아트	2) 전문가 평가
1) 작품구상	3) 자기 평가
(1) 내가 느끼는 ‘친구’	<감사의 글>
(2) 그림 도안 스케치	<참고 문헌>
2) 작품 그리기	<부록>
(1) 가끔은 가족보다	
(2) 불안함과 두려움, 작게 보이는 자유	
(3)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학년 때 입학식 준비를 하며 처음으로 컬러 스프레이를 써보았다. 예전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나는 흥미를 느꼈고 그 후로 그래피티 아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피티 아트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서 좋아하게 되었다. 논문을 쓸 시기가 되자 나는 그래피티로 논문을 쓰려고, 하였고 나온 주제는 ‘간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피티의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었다. 하지만 논문 계획서 발표가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 정작 사람들은 그래피티의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주제를 바꾸었다.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논문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친구라는 존재가 떠올랐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는 존재를 그래피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2. 논문의 목적

나는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서인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고 어렵게 사귀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존재가 매우 소중하다고 느낀다. 친구들이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친구들이 없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어려워진다.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친구라는 존재를 그래피티 아트로 표현해서 친구라는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느끼고 공감했으면 좋겠다. 꼭 동갑내기 또래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내는 친구는 누군가에겐 가족, 누군가에겐 동물, 누군가에겐 선생님이로 생각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려내는 ‘친구’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표현한 ‘친구’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친구를 떠올리며 감상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누군가는 가족, 동물, 선생님을 떠올리며 작품을 봐주는 것이 내 바람이다.

3. 논문 연구방법

그래피티 아트를 하려면 먼저 그래피티의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피티에 대한 공부는 초반에는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서 기법등이나 강의 그래피티의 역사 등을 찾아봤고 나중에는 그래피티 관련 서적을 이용해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나 과거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서적을 보고 어떤 뜻을 담아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배우며 공부했다. 꼭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피티가 아닌 다

큰 것들로도 그래피티 아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스프레이를 이용한 그래피티 아트였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사용한 그래피티 아트 위주로 영상을 보거나 관련된 서적을 보았다. 공부를 하고 그림을 전시할 공간을 구상하고 그 공간에 맞는 나무합판의 크기를 재고 작품의 크기를 구상하여 기록했다.

방학 때는 주로 스프레이에 적응하며 선을 깔끔하게 넣거나, 색을 칠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스프레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진행했고 스프레이의 종류나 친환경 스프레이 같은 많은 스프레이의 종류나 노즐 같은 스프레이를 알아보거나 작품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피티 아트가 그려져 있는 곳에 탐방을 가보았다. 그래피티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사용한 그래피티 아트에 필요한 장비를 알아보았다. 그린 작품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한 내 작품을 평가해주실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피드백이나 의견을 받았고, 내 작품을 전부 그리고 나서 평가도 받을 예정이다.

1) 참고 서적 및 영상

● 그래피티 작가/최성욱

이 책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정말 재밌게 읽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다. 작품을 소개해주는 책이 아니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은 책이어서 다른 책들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다 읽고 나서도 세 번쯤 더 읽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읽을 것 같다. 내가 궁금했던 것이나 필요했던 그래피티를 자유롭게 해 볼 수 있는 장소라거나 그래피티 아트가 많이 그려져있는 장소. 스프레이 뿐 아니라 다른 종류.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그래피티 아트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종이에 작품을 그려서 벽에 붙이는 방식의 그래피티 아트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하다./마틴 볼 (역) 이승호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하다를 읽고 이 사람의 이야기보다 이 사람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었던 책 같았다. 게다가 내가 하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래피티를 했던 사람이어서 더 흥미가 떨어졌던 책이었다. 별로 느낀 건 없었다. 뱅크시의 스텐실 기법 스타일로 그래피티를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장 미셸 바스키아/레온하르트 에머 롤링 (역) 김광우

장 미셸 바스키아의 책을 읽었다. 전에 읽었던 벅크시의 대한 책과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작품의 대한 소개, 줄거리를 설명하는 책이었다. 다른 점은 벅크시의 스텐실 기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의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다. 스프레이가 아닌 오일 크레용, 파스텔 같은 도구로도 작품을 그려냈다. 바스키아의 작품들은 대부분 나의 마음에 들었던 작품들이었다. 정말 낙서 같은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으로 밖에 담지 못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많은 뜻을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좋았다.

- '즐거운 촌식이'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8qnGaa5g_OYeaxANqPgUew

즐거운 촌식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많이 참고했는데 소화기에 페인트를 넣어 그래피티 아트를 해보는 등 재밌는 영상이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팁이 담겨있는 영상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 'L. A. C Studio'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Leodav1979>

레오다브 작가님의 영상은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연예인을 보는 느낌으로 보았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목표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줬던 영상이었던 것 같다. 정말 멋있었고 예뻐다.

2) 참고 서적 및 영상

방학 때 스프레이를 손에 익힐 겸 그림을 그렸고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잘 표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조언을 얻고 싶어서 방학 때 그려왔던 그림들로 전문가께 중간 피드백을 받았다.

(1) 평가 받은 그림





(1) 평가 내용

- 그래피티 아티스트 : Leo Dav

안녕하세요.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 중인 LEODAV입니다.

박연우 학생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논문에 대한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피티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림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래피티 작가들이 대학교 논문에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완성도 있는 논문을 작성하려면 대학논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그래피티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서 친구라는 주제로 변경한 점은 참신한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피티 논문들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현재 그래피티문화의 생태계 등을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그래피티 작가들의 생각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논문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라는 주제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내 주변의 인물들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다 보면 무언가 아쉬움들이 남아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연습한 작품들을 보니 박연우 학생은 처음이지만 잘 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내가 의도했던 것이 잘 드러났는지”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갤러리에 가서 누군가의 그림을 보았을 때, “아 친구를 그렸구나, 축구를 좋아하나봐.” 라고 관람객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작품을 보고 친구를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동생을, 누군가는 아버지를, 삼촌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고 틀린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제도 그렇고 다음 번에 다른 작품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방법은 대자보도 좋고 PPT 알림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피티에는 스프레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작업하는 스텐실도 있고 픽셀아트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공간이 없다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도 좋고 아니면 포장할 때 쓰는 랩을 이용해서 나무나 가로등처럼 기둥사이를 길게 연결하여 간이 벽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그것도 힘들다면 마트에서 종이상자들을 모은 후 합쳐서 커다란 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피티를 벽에만 할 필요는 없고 또한 꼭 스프레이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현재 공업용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작품을 연습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물론 예전엔 저 역시 공업용 스프레이 (동서, 일신 등등)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그래피티 전용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졸업작품을 만들 경우엔 한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마도 지금 퀄리티에서 30-40%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항상 먼저 스케치를 한번 하고 옮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스케치 없이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꼭 종이에 펜으로 연습을 하시고 선을 그을 때는 짧은 선으로 끊어서 긴 선을 만들지 말고 한 번에 길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벽에 그림을 그릴 때 최대한 손목보다는 어깨를 사용하는 법도 미리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졸업 논문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실습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멋진 작품을 기대하며.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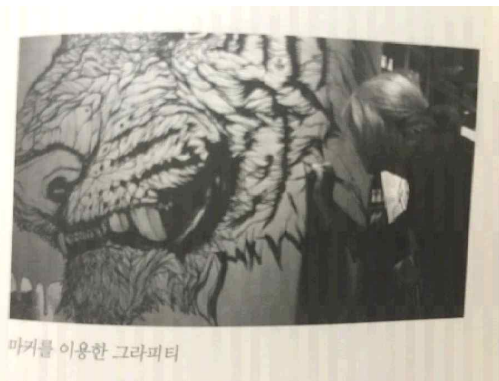
1. 그래피티란

1) 그래피티의 정의

그래피티(graffiti)의 어원은 '긋다, 긋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와 그리스어 'sgraffito'이다. 처음에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주도했다. 분무 페인트를 이용해 격렬한 에너지를 지닌, 속도감 있는 문자들을 거리의 벽에 그렸다. 이것들은 즉흥적이며 장난스럽고 상상력이 넘치는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컬러 스프레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낙서로 인해 많은 도시의 골칫거리였지만 장 미셸 바스키아나 키스 해링, 뱅크시 같은 인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대중화되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며 그래피티 아트는 더 이상 도시의 골칫거리가 아닌 벽화의 한 종류로 전시관에 전시가 되기도 하며 타일 혹은 종이 같은 것으로도 그래피티 아트를 하는 사람이나 스프레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마커나 다양한 그래피티 아트들도 생겨 이제는 도시의 골칫거리가 아닌 거리에서 하는 미술활동인 스트리트 아트 (공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림 또는 전시 같은 것들) 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



<그림 9>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그래피티 아트²⁾



<그림 10>-마커를 이용한 그래피티 아트

2) 그래피티의 종류

앞서 말했듯이 그래피티 아트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꼭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만이 그래피티 아트가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로도 그래피티 아트를 할 수 있다. 하

1) 네이버 사전에서 인용

2) 이미지 출처 : <http://bianca-ariel.blogspot.com/2016/03/banksy-1.html>

지만 나는 스프레이라는 재료로 그래피티 아트를 하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사용한 그래피티 아트의 종류를 말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래피티의 다양한 종류의 기법들을 보여줄 것이다. 먼저 그래피티의 기법들이다. 그래피티의 기법들은 정말 많다. 내 본문에 들어가게 될 그래피티 용어들이나 기법들을 여기서 보여줄 것이다.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사진을 넣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겠다. 내 논문에 레터링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들어간다면 넣을 스타일은 버블 스타일이다.³⁾

3) 그래피티의 기법



둥글둥글한 스타일의 레터링이다. 빠르게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쓰는 기법이다. 스로업에 속한다. ⁴⁾

<그림 11> 버블 스타일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기법이다. 보통 현란하고 삐죽삐죽하며 손이 많이 간다.⁵⁾

<그림 12> 와일드(뉴스쿨)

3) 둥글둥글한 스타일의 레터링이다.

4) 이미지 출처 : <http://soulofgraffiti.blogspot.com/2011/06/graffiti-bubble-style.html>

5) 이미지 출처:<https://www.pintaram.com/t/청주그래피티>



<그림 13> 블록버스터

빠른 시간 안에 넓은 벽을 채울 때 쓰이는 방식. 롤러 붓으로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형태에 두세 가지 색상으로만 이뤄진다. 다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작업 위에 덧씌울 때 흔히 쓰인다.⁶⁾



<그림 14> 올드스쿨(Old skool)

올드스쿨은 말 그대로 오래된 스타일이며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리는 레터링 기법이다.⁷⁾



<그림 15> 3D

말 그대로 입체처럼 그래피티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래피티 스타일이다.⁸⁾

6) 이미지 출처: <https://weburbanist.com/wp-content/uploads/2009/09/blockbuster-graffiti.jpg>

7) 이미지 출처: <https://rvamag.com/articles/full/8816/old-skool-meets-old-skool-graffiti-in-motion.html>

8) 이미지 출처 : <https://digitalsynopsis.com/design/3d-graffiti-street-art-anamorphic-odeith/>



<그림 16> 스텐실

글자나 그림을 오려내어 벽에 찍어내는 기법이다. 복잡한 그림을 빠르게 그릴수있다.복잡한 묘사를 판화로 단 시간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트 아트로서 그래피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다. 영국의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였던 뱅크시가 사용했던 기법이다.⁹⁾



<그림 17> 헤븐(Heaven)

아파트 벽 같은 하기 어려운 곳에 그림을 남겨놓는 그래피티 스타일을 말한다.¹⁰⁾

4) 그래피티 용어

- 태그네임



<그림 18> 태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만드는 자신의 별명 같은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태그네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표식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남겨 놓는 것인데 주로 자신의 별명(태그네임)으로 표현된다.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leo dav' 의 태그네임 Leonardo da Vinci 의 'Leo'와 'da V'로 만들어졌다.¹¹⁾

9)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7/2017021700390.html

10) 이미지 출처:<http://an-unscheduled-stop.blogspot.com/2010/04/graffiti-heaven.html>

11) 이미지 출처:<https://www.flickr.com/photos/tags/그래피티작가레오다브/>

- 캐릭터



그래피티로 캐릭터 또는 인물을 그려 내는 것을 뜻 하는 용어이다.¹²⁾

<그림 19> 캐릭터

- 스로업(Throw up)

그래피티를 던져놓는다는 뜻으로 그래피티를 빠르게 그려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통 버블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 바밍

허가받지 않은 곳에 하는 그래피티 아트를 하는 것을 부르는 용어이다.

2. 그래피티 아트

1) 작품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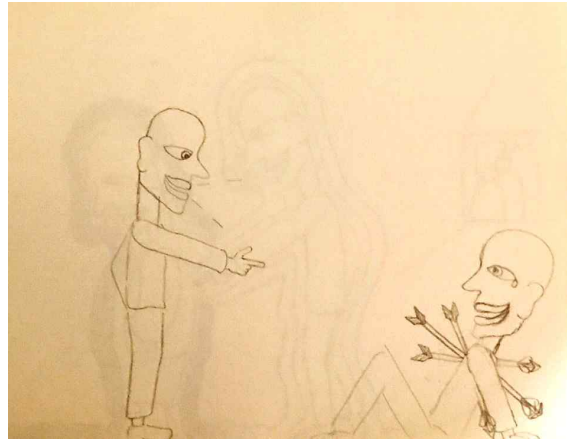
(1) 내가 느끼는 친구

내가 느끼는 친구란 정말 가족과 같았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고 어떨 때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생겨 싸우기도 했다. 싸웠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갔고 서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되었다. 입학 초반 나는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친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매달리며 의지했다. 가족은 멀리 있어서 의지하지 못했고 가장 가까워서 있어준 것이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끌려 다니며 지냈다. 끌려 다니는 내가 싫었지만 친구들이 아니면 나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끌려 다녔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표현

12) 이미지 출처:<http://picssr.com/photos/leodav/interesting?nsid=87623055@N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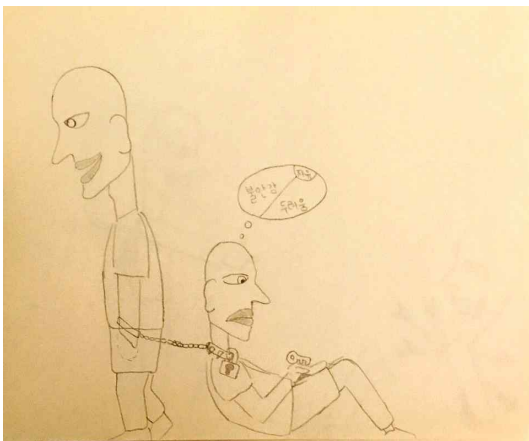
하고 싶었다. 친구는 또 다른 가족이다. 크게 싸우기도 하고 서운해 하기도 하고 가끔은 질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내 옆에 있었던 건 친구였고 가장 편안한 것도 친구였다.

(2) 그림 도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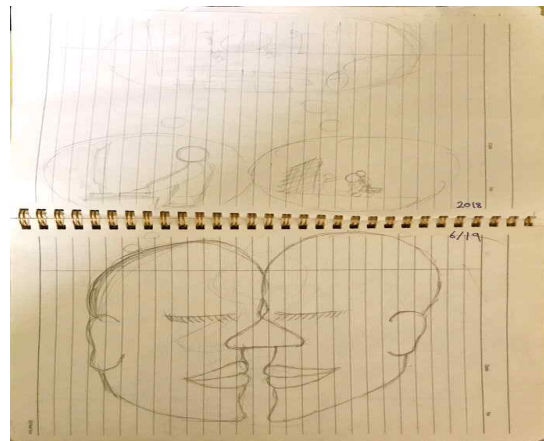
<그림 20>

작품으로 만들기 전 최종으로 그린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의 도안이다.



<그림 21>

'불안함과 두려움, 작게 보이는 자유'의 최종 도안이다.



<그림 22>

작품에는 넣지 않은 도안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더 친해질 수 있었다는 뜻을 담은 스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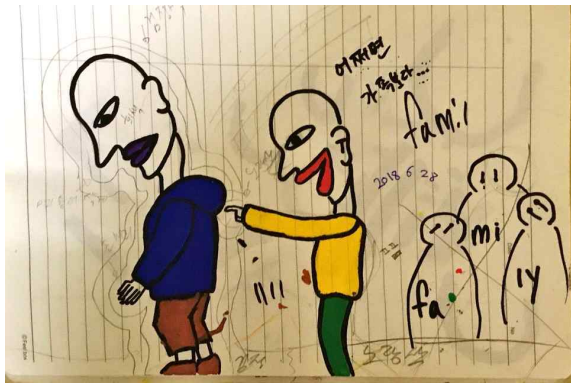
<그림 23>

작품을 구상하며 처음 나온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의 채색 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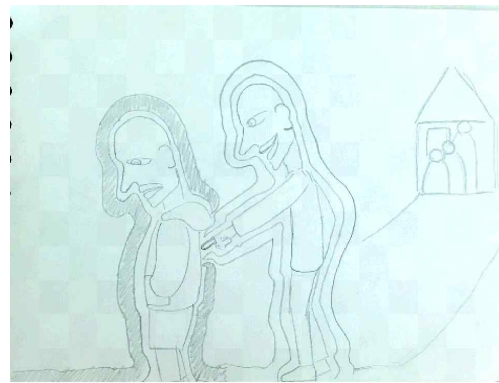
<그림 24>

작품으로 나온 '나를 채워주는'의 도안이다. 원래대로라면 저 그림처럼 친구까지 나왔어야 했는데 그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넣지 못했다.



<그림 25>

'어찌면 가족보다'의 채색 도안이다. 손의 섬세함을 잘 표현하고 싶었지만 짙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바람에 잘 넣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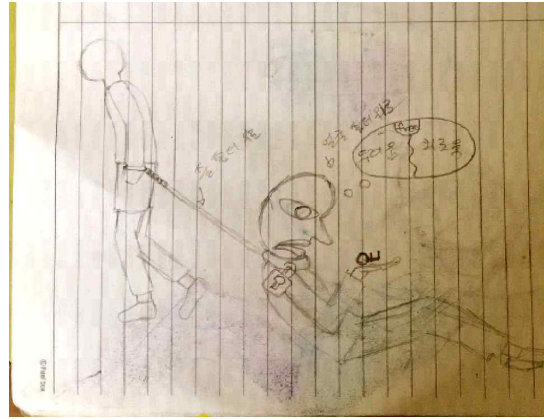
<그림 26>

'가끔은 가족보다'의 마지막 도안 스케치다. 채색 도안과는 다르게 나의 어두운 기운과 친구의 밝은 기운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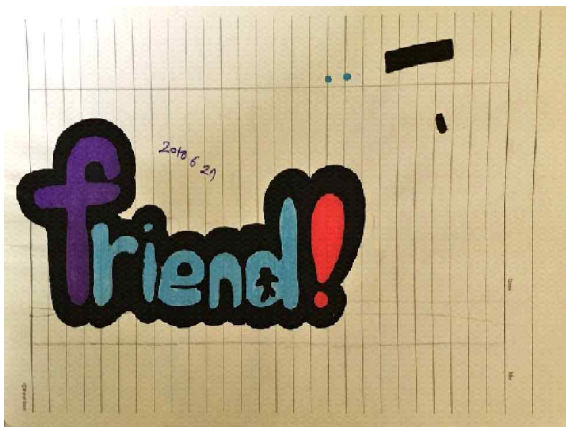
<그림 27>

‘불안함과 두려움’의 채색 도안이다. 저 때는 친구를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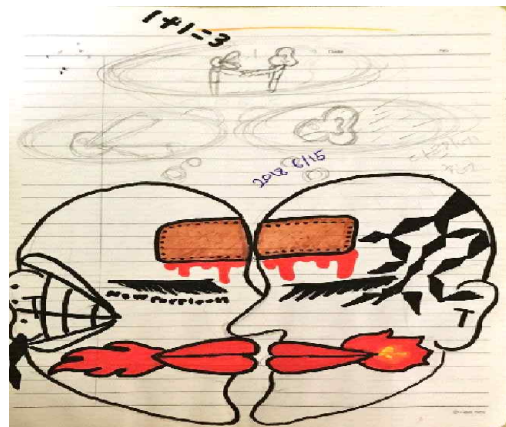
<그림 28>

‘불안함과 두려움, 작게 보이는 자유’의 처음 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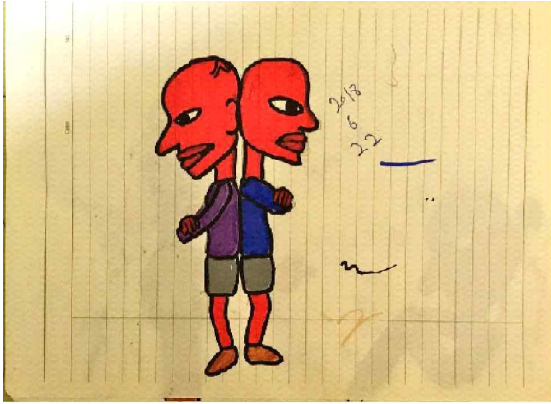
<그림 29>

친구라는 뜻을 가진 'friend'를 레터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작품에는 넣지 않았지만 넣어도 좋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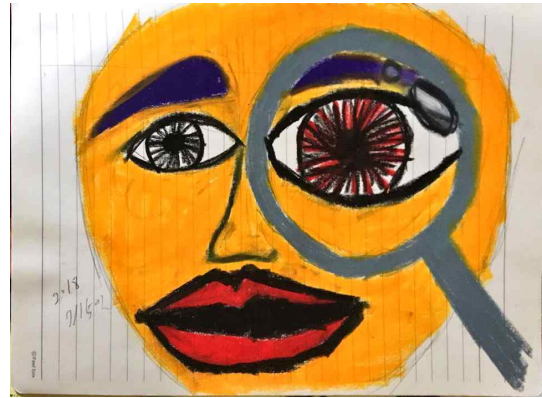
<그림 30>

작품에는 넣지 않은 도안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더 친해질 수 있었다는 뜻을 담은 스케치의 채색 스케치다.



<그림 31>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끔은 싸운다는 것을 표현한 스케치다. 작품으로 나오지는 않은 스케치다.



<그림 32>

작품으로 나온 '고맙지만 부담스러워'의 채색 스케치 도안이다.

2) 작품 그리기

(1) 가꿈은 가족보다



<그림 33> 가꿈은 가족보다

나에게 힘들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다가와서 힘이 되어준 건 어쩔 수 없이 친구였다. 같은 또래이기에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었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게 친구였기 때문이다. 우울한 생각이 나를 덮었을 때 밝은 기운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우울한 기분을 줄여주어 힘이 되어주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 가족은 위로를 해주기엔 너무 멀리있다.

(2) 불안함과 두려움 작게 보이는 자유



<그림 34> 불안함과 두려움 작게 보이는 자유

나는 끌려 다녔다. 낮을 많이 가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친구가 생기자 그 친구에게 끌려 다녔다. 그때는 내가 끌려 다닌다는 걸 알지 못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알겠다. 나는 학교에 와서 친한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다. 하고 싶은 게 없었고 할 것이 없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쓸쓸했다. 나 혼자 내 목에 목줄을 맨 것이다. 나는 목줄을 풀고 나갈 수 있었지만 풀고 나가면 혹시나 이 친구를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내가 다시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같은 멍청한 생각에 나는 끌려 다녔다. 목줄에 끌려 다니고 목줄을 벗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지만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목줄을 풀지 못 하는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불안함과 두려움 글씨는 직접 그리기엔 어려울 것 같아 스텐실 기법을 이용했다.

(3)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



<그림 35>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

가끔인지 자주인지 모르겠다. 친한 친구들의 장난 중에는 나를 찌르는 말들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게 내 속을 헤집고 내 속에 그대로 남아 흉터가 되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흉터가 됐던 말들이 생각나 불편해지기도 한다. 내겐 몸을 사용한 폭력보다 사람들의 입이 남긴 흉터가 아직까지 날 우울하게 하고 내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흉터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나서 나를 괴롭힌다. 친구의 입이 화살이 되어 내 안에 꽂히고 친구의 입이 나를 찌르는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4) 고맙지만 부담스러워



<그림 36> 고맙지만 부담스러워

친한 친구든 안 친한 친구든 갑작스러운 말이나 갑작스러운 행동 그것이 무례한 언행이라면 더욱 더 심하게 느껴진다. 갑작스럽게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너무 잘 안다는 듯이 갑자기 다가오거나 나와 가까워지려고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들 가끔은 친해지기 위해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울 때도 있지만 무례하게 다가오려하는 언행들을 보면 나는 부담스럽다. 이런 짧은 글과 함께 전시될 작품이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을 넓고 큰 얼굴과 나를 부담스럽게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돌보기로 표현한 작품이다. 입술에 쓰여 있는 글씨는 '부담스러워' 라는 문구로 내가 직접 쓰기엔 작고 어려워서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 넣었다.

(5) 나를 채워주는



<그림 37> 나를 채워주는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 그런 나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친구들 덕분에 항상 고맙고 항상 미안한 감정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멋진 그림이 되는 퍼즐로 표현한 작품이다.

3) 작품 과정

작품을 만들면서 아직 이 나이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내 힘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서 필요한 재료나 비싼 장비들을 살 수 없었다. 가격이 낮은 스프레이는 힘이 세서 조금만 가까이 대거나 오래 한 자리에 머무르면 페인트가 흘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선이 나오기 힘들고 선을 그리면 옆에 가루들이 많이 묻는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더러워져서 보기 안 좋다. 가격이 높은 스프레이는 가루가 튀는 게 없고 잘 흐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얇은 선을 그리기 쉽다. 비싼 것과 싼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비싼 스프레이를 내 작품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많이 된다. 날씨도 내 작품 방해에 한 몫 했다. 작품 발표 하루 전 계속해서 비가 왔고 작품을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나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작품을 만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비를 맞으며 나무를 옮기고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에 너무 힘들었다. 바람이 계속 불어 넘어지는 작품을 세웠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었기에 계속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품의 질이 너

무 아쉽다. 맘에 드는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다양한 색, 다양하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많은걸 써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

(1) 방문 및 탐방

- 전문가 레오다브 (leo dav), 다솔 워크스 (Dasol Works) / 2018년 9월 19일

10시에 전문가님을 만나 전문가(레오다브)님 차를 타고 이동했다. 같이 작업을 하실 다솔 작가님을 만나 같이 매니저님 차를 타고 같이 이동했다. 내가 낮을 많이 가려서 대답도 잘 못하고 얼어있을 것 같았지만 나름 대답을 잘 했던 것 같아 만족했다.

전문가님 사무실에 들러 스프레이를 챙겼는데 내가 비싸서 몇 개 사지 못 한 스프레이들이 색깔마다 많이 나열되어 있었다. 정말 멋있었다. 작업을 할 공간을 찾으려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냈다. 한 굴다리 옆에 낙서가 있는 벽에 작업을 하기로 했고 전문가님이 나도 해보라고 시켜주셨다. 땀을 흘리다가 그리기를 시작했고 다솔 작가님이 중간 중간 피드백을 해주셨다. 노즐을 누르는 힘 조절이나 선을 잘 따는 법 같은 것을 배웠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비싼 게 좋긴 좋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다. 색도 다양하고 아무리 가까이서 뿌려도 흐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좋았다. 그렇게 내 그림은 끝나고 다솔작가님의 그림이 시작됐다. 정말 멋있었다. 선을 얇게 칠하는 기술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놀라웠다.

4시부터 시작했던 작업은 7시쯤 끝이 났다. 다솔 작가님과 레터링 그리는 법을 따로 배웠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만남이었고 내가 낮을 많이 가려서 아무것도 못 할까봐 걱정했지만 나름 잘해서 좋았다. 마지막에 싸인을 못 받은 것이 많이 아쉽다. <https://youtu.be/t9vXqKWXvlw> (내가 찾아 뺐던 날 나온 작품 과정을 담은 영상이다.)



<그림 38>



<그림 39>

- 경주 우양 미술관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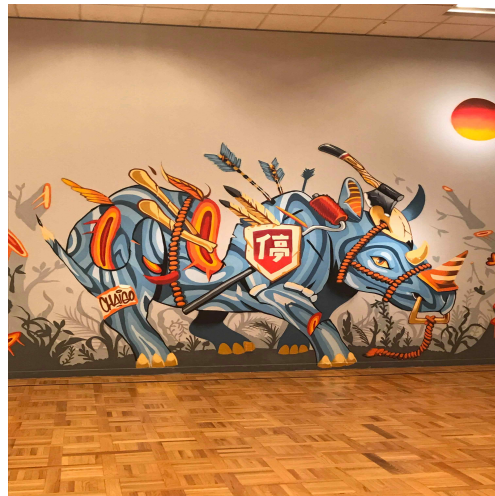
그래피티 : 거리미술의 역습

경주에 있는 우양 미술관에서 하는 그래피티: ‘거리미술의 역습’이라는 전시회를 보러갔다. 세 명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그림들이 있었다. 사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 벽에 바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워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중에 ‘켄지 차이’ 라는 작가분이 있었는데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동물들을 그리셨는데 색이나 표현하시는 게 마음에 들었다. 특히 동물들의 눈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눈동자의 색감이 정말 예뻐서 기억에 남았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냥 멋있고 예쁘기만 했는데 가까워서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보였을 때 재밌기도 했다. 스케이트 보드에 한 작품도 있었는데 멋있었다. 보드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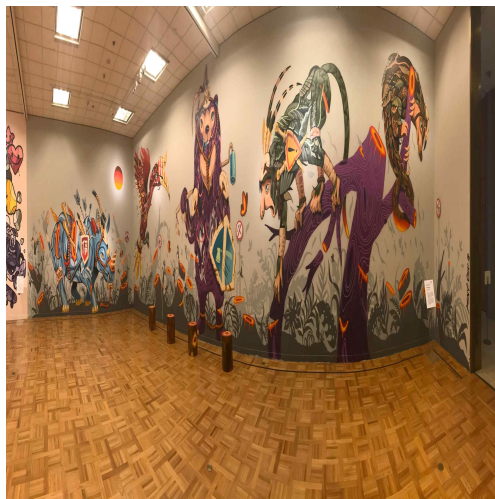
<그림 40>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2) 작품과정 사진



<그림 44> 순서 1



<그림 45> 순서 2



<그림 46> 순서 3



<그림 47> 순서 4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1) 성과와 한계

이번 논문을 통해 이후에 논문을 쓸 사람들도 그래피티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배우고 굳이 그래피티가 아니라 인간관계나 살아가면서 꼭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이번 논문을 통해 배웠다. 하지만 역시 나의 능력, 환경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던 것 같아 아쉬웠다. 값이 비싼 스프레이나 좋은 배경 같은 내 작품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나의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들지만 이 논문이 없었다면 내가 꿈꿨던 그래피티 아트는 그저 꿈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논문 덕분에 엄청나게 슬펐던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기뻐던 날들이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마냥 엄청나게 좋을 것만 같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고, 그런 날들이 있어야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다. 내가 가장 꿈꿨던 논문의 성과는 나의 성장이었다. 논문을 쓰면서 관계를 배우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목표에 어느 정도 다가간 것 같이 느껴지자 다른 욕심이 생겼다.

내 논문이 끝나고 앞으로 논문을 쓸 학년들 중 그래피티에 관련된 논문을 쓰는, 논문을 쓰지 않아도 그래피티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더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싶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피티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장 얻고 싶었던, 내가 가장 바라던 논문의 성과이지 않을까.

2. 작품평가

1) 간디인 평가

-그림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색 표현이 좋았고 의미를 들으니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어딘가 모르게 공감이 되었다. 근데 기숙사 올라갈 때 보면 너무 무섭다.

-‘고맙지만 부담스러워라’는 작품이 상대가 나를 부담스럽게 관찰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돋보기를 들고 있는 상대방의 눈빛이 더 부담스러워 보인다. 상대방의 난감함과 부담스러움을 공감해 버릴 뻔했다.

-작품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된다. 스텐실 기법이 너무 예쁘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 작품 배경 색칠을 할랑 말랑 거린 게 너무 거슬린다.

-본인의 감정묘사가 풍부하게 들어간 작품들인 것 같다. ‘친구’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작품마다 잘 나타낸 것 같다. 이번 논문을 통해 기초 그래피티 실력도 탄탄하게 갖춘 듯하다. 전체적인 색감도 좋고, 선도 깔끔해서 보기 좋다.

-연우의 논문은 진짜 학교생활의 모든 것을 녹여낸 것 같다. 내가 다 겪은 일이고 나의 지인 가족들도 겪어본 이야기 일 것이다. 지금 중3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3학년이 그렇듯 논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불타오른다. 하지만 연우는 올라 갈 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냈고 자신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나에게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

2) 전문가 평가

● 그래피티 아티스트 : Dasol Works

대부분의 처음 스프레이를 접해본 사람들은 깔끔하게 선 그리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압 조절 법 및 스프레이 각도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삐뚤삐뚤한 선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퀄리티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연우 학생은 스프레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본인 작품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신경을 쓴 부분들이 보입니다. 또한 작품 설명 중 본인이 '표현하기 어려워서' 스텐실 기법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스텐실 기법 또한 그래피티 범주에 속하며 오히려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다는 부분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연우 학생이 작품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본인 작품을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준 작품들은 설명을 읽기 전까지 무슨 주제를 표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꼭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고,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연우 학생의 작업 경험 기간을 봤을 때 충분히 훌륭한 작업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작가님들에게 자신있게 연락을 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열정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구요!

기대하겠습니다. :)

● 그래피티 아티스트 : Leo Dav

박연우 학생의 그림들은 초기 바스키아의 작품을 보는 느낌이다. 거칠고 정해지지 않은 선과 채색들이 주제와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그래피티라는 장르를 흔히 텍스트를 복잡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으로만 써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해진 방법이 없는 것이 그래피티, 낙서이다. 아직은 재료나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그것만 해결된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친구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스타일과 나와 타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을 것이다. 전문적인 미술교육보다는 자유로운 여행과 독서, 음악 등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프레이뿐 아니라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앞으로의 작품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3) 자기평가

전체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다섯 개의 작품중에 대부분이 가격이 낮은 성능이 안 좋은 스프레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많이 아쉬웠다. 게다가 실수 한 것도 많아서 더러워보이는 부분들도 가끔 보이기에 아쉬웠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게 뿌듯했고 좋았다. 이 작품들 덕분에 나는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품들을 발판삼아 더 내가 만족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의 글>

논문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합판 다듬는 거 도와준 하늘이, 재료를 후원해주고 많은 조언 해주신 엄마, 아빠 그냥 거의 논문 한 번 더 써주는 것처럼 작품 제작 엄청 도와준 강연우형, 계획서 쓸 때 노트북 빌려준 태훈이 형, 한글 파일 사용방법 알려준 권윤서, 고맙고 모두 감사합니다. 논문 도와준 모든 사람들 논문 쓸 때 같이 있어준 친구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평가해준 사람들, 전문가 leo dav 작가님, dasol works 작가님, 작품 봐준 사람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강연우 형♥,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논문 쓰는데 옆에서 활기를 불어넣어준 한주도 고맙고, 204호도 고맙고 논문 진짜 쪽 계속 도와주신 덕래쌤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분반 수고했습니다.

덕래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마틴 볼(2013), 『아트 테러리스트뱅크시,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하다.』(역 : 이승호) 서울 : 리스컴

레온하르트 에머링(2008), 『장 미셸 바스키아』(역 : 김광우) 서울 : 마로니에북스

최성욱(2018), 『자유롭다면 그래피티 작가』 서울 : TALK SHOW

Leodav Graffiti 유튜브 채널 영상,

<https://www.youtube.com/user/leodav1979>

im'in SEOUL(2018.04.22)“ [artist HONG3]홍대 거리의 그래피티! 스트리트 보이,”<https://youtu.be/IT7EPeB-mnQ>

chunsic즐거운춘식이(2018.02.04) “제6화 발색이 심하게 안 좋은 황색, 주황, 적색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해외스프레이는 해당 없음.)”

<https://youtu.be/zuBHibEhDt8>

문화포털(2018.04.22) “낙서와 예술 사이, 그래피티 아트”

<https://youtu.be/UEfZSrX31us>

chunsic즐거운춘식이(2016.08.25) “제4화 그래피티 과정을 살펴 봅시다. 강좌 덕분에 오랜만에 그림 한번 그렸네요.”

https://youtu.be/B97xx_WZkag

chunsic즐거운춘식이(2016.08.23) “제3화 전신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선을 그려봅시다.”

<https://youtu.be/kevhicmC7U8>

chunsic즐거운춘식이(2016.08.22.) “제2화 묶은 스프레이 흐르지 않게 사용하기.”

https://youtu.be/gJWhka_qRxs

<부록>

2018년 4월 20일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꾸역꾸역 해봐도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다.
계획서를 덕래쌤한테 보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2018년 4월 25일

논문 계획서 발표가 끝났다.
엄청 떨었다.
왜 그렇게 떨었는지..
주제를 바꿀까 계속 고민이 된다.
아예 작품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생각이 든다.

2018년 5월 6일

지금은 일본이다. 논문 말고도 지락, 무빙준비, 작업장 너무 할 것이 많다.
덕래쌤이 내주신 숙제를 해야 한다.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그냥 배째라고 하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해온 벽화라는 주제의 논문들은 페인트가 전부 친환경이었는가?
절대 아니다. 나도 친환경 안 할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멍청한 생각이었다)

2018년 5월 9일

오늘 아빠랑 논문 상담을 했다.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도움을 잘 청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논문이 주는 배움일수도 있다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은 필요한 말이 아니면 어느정도는 걸러도 된다는 것
멋있었다.

2018년 5월 11일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책도, 영상도, 덕래쌤이 내주신 숙제마저 안 하고 있다.
기록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있다.
나중에 후회 할 텐데

2018년 5월 15일

덕래쌤과 바스키아라는 예술가를 보고 공부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래피티를 하는 예술가였다.
그 사람의 관련된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꼭 스프레이가 아니라 오일크레용이라는 것도 알아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상담이었다.

2018년 5월 20일

가정학습전에는 설문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꼭 꼭 설문을 받아야겠다.

2018년 5월 25일

덕래쌤이 오일크레용을 주문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많이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8년 5월 28일

오일크레용을 처음 써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

재밌었다.

이런걸로 해봐도 나쁘지 않을 듯

2018년 5월 31일

오일 크레용은 잃어버리고 설문도 못 돌렸다.

작품구상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2018년 6월 7일

무빙을 가기 전 덕래쌤이 말씀하셨던게 있다.

벽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판자 같은 곳에 그려서 벽에 붙이는 것은 어떠냐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았다.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나한테 좋은 것 같다.

2018년 6월 14일

계속 작품을 구상해보았다.

지금 세 개? 정도 나왔는데 작품은 일곱 개 정도로 할 생각이다.

내가 생각해서 그리는 작품뿐 아니라 간디인들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존재를 설문으로 받고 작품으로 그려낼 생각이다.

2018년 6월 21일

심각하게 논문이 걱정이 된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할 것이 너무 많다.

무빙이 좋았다.

2018년 6월 23일

아빠가 그래피티 전시회에서 사오신 펜을 써보았는데 좋았다.

잉크? 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은 불편했다.

2018년 7월 2일

작품구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허술해보인다.

더 잘 그려야 할 듯

어렵다.

2018년 7월 12일

방학 때 학교에 가서 작업을하는 것을 희석쌤과 얘기를 해 보았다.

희석쌤이 경당합숙 때 같이 올 수 있다고 하셨다.

같이 오려면 과제?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제를 주셨다.

같이 가려면 합숙비도 같이 내야해서 별로 있지도 못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다.

고민을 많이 해봤다. 그래도 감사했다.

2018년 7월 16일

방학이다.

집에와서 스프레이를 써봤는데 너무 좋았다.

행복했고 재밌었다.

그래피티를 할 합판은 나무로 해야 할지 플라스틱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래피티 말고도 할게 많다.

2018년 7월 19일

오늘은 좀 짠 스프레이를 써봤다.

모기 때문에 많이 써보지는 못 했지만 역시 비싼게 좋은 것 같다.

많이 써봐야 할 듯

2018년 7월 21일

오늘은 내 논문에 넣을 캐릭터를 그려봤다.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려서 몸까지 다 안 나온다.

2018년 7월 22일

선을 그리는 연습과 힘조절 연습을 했다.

이번엔 값이 싼 스프레이들을 사용해 봤는데

역시 싼 건 별로였다.

만원짜리와 이천오백원 짜리의 차이가 이렇게나 클지 몰랐다.

만원짜리는 같은 곳에 오래 뿌리고 있어도 별로 크게 흘러내리지 않고 부드럽고 살살 나가면서 선이 예쁘지만 싼 건 분사도 무식하게 강하게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엄청 흘러내렸다.

선은 비싼걸로 그리고 색칠만 싼 걸로 해야 할 듯 하다.

아 그리고 싼 것에서 조금 다른 모양에 노즐을 사용해 봤는데 색칠하기에 아주 좋은 노즐이었다. 성과는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다.

2018년 7월 23일

그래피티 연습을 했다.

싼 것의 문제점이라 해야 하나 내가 쓰는 싼 스프레이가 이런건진 모르겠지만

진하지가 않다.

물이 많아서인지 연하게 색이 나와서 몇 번 더 칠해줘야한다.
하지만 몇 번 더 칠하면 페인트가 흘러내려서 매우 난감하다.
정말 불편하다. 슬슬 그릴 공간이 없어서 나무 합판을 주문해야 할 듯

2018년 7월 24일

오늘은 어찌다가 발견한 노란색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색을 넣어봤다.
확실히 해봐야 느는 것 같다.
색을 칠 할 때 맨 처음에 그렸던 바탕 선 까지 덮어줘야 예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합판과 스프레이를 더 구매해야 할 것 같다.

2018년 7월 22일

아빠가 사주신 흰 페인트랑 스프레이들로 나무를 새로 덮고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보았다.
조금은 멀리서 해도 선이 잘 그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피티를 바로 하지말고 먼저 스케치를 해보고 그리는게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재밌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서 점점 내 실력이 늘어가는게 보이는 것은 좋다.

2018년 7월 28일

오늘은 몸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꾸며서 빈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었지만 나름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다.
손까지 그렸다.

2018년 8월 6일

오늘은 작은 고모가 사주신 스프레이를 써 봤는데
물도 너무 많아서 많이 흘러내렸고 색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르고 나니까 쪼개지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정말 별로였다.
하지만 사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했다.
양도 적어서 아쉬웠다.

2018년 8월 13일

내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조언이나 피드백
그래피티라는 것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을 지금쯤 한 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정중이다.
학교에가면 판자가 커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018년 8월 20일

전문가에게 평가 및 피드백을 부탁할 메일 내용을 구상하는 중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걸 해봤어야 알지 내용은 어느정도 구상해냈는데 제목이 문제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2018년 8월 27일

방학이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합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가 정상쌤에게 여쭙어보라고 하셔서 곧 정상쌤에게 합판문제를 얘기 해봐야겠다.

2018년 9월 3일

전문가에게 작품 피드백을 받았다.

전문가께서 한 번 만나보자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다.

2018년 9월 4일

정상쌤이 합판을 정말 싸게 팔아주셔서 합판 여섯 개를 얻었다.

이제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크게 합쳐서 내가 작품을 그려넣을 곳을 만들어야한다.

아직 막막하다.

2018년 9월 5일

하늘이가 합판 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도와줬다.

그 덕에 얻은 합판들 전부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빨리 끝낼수있었다.

정말 고마웠다.

2018년 9월 6일

합판을 크게 조립하는 것을 연우형과 하늘이가 도와줬다.

하지만 너무 약하게 조립한 나머지 비가오고 바람이 불자 부러지고 말았다.

다음에는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2018년 9월 7일

오늘은 조금 더 튼튼하게 합판을 만들었다.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튼튼해졌다.

이제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대 반 걱정 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됐다.

2018년 9월 9일

작품을 살짝 그려봤는데 노즐을 누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등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노즐을 누르지 못 했다.

5분정도 합판 앞에 서 있다가 그렸는데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옆에서 날로먹는다 너무 쉽게하는거 아니냐 꿀빤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어찌지 하는 생각과 정말 내가 날로먹는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헛구역질이 나올뻔했다.

2018년 9월 16일

두 번째 그림이 나왔다. 내가 구상한건 친구의 손까지 그리는거였는데 친구의 손은 그리지 못 하고 채워지고 있는 나만 그렸다. 퍼즐이 작운데 선이 너무 두껍게 나와서 얇게 하려고 덮고 칠하고 덮고 칠하고를 반복하다보니 흘러내리고 뭉쳤다. 이번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2018년 9월 18일

중간발표를 했다.
사람도 많았고 논문 중간발표라서 엄청나게 긴장됐다.
계획서 발표 때 엄청 떨어서 발표도 못 했던 기억 때문에 더 긴장이 되었다.
앞으로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말하는 것은 안 떨었다.
다만 손이 덜덜 떨렸다.
질문도 별로 안 나와서 다행이었다.
얼른 작품을 만들어야한다.

2018년 9월 19일

10시에 전문가님을 만나 전문가(레오다브)님 차를 타고 이동했다.
같이 작업을 하실 다솔 작가님을 만나 같이 매니저님 차를 타고 같이 이동했다.
내가 낮을 많이 가려서 대답도 잘 못 하고 얼어있을 것 같았지만 나름 대답을 잘 했던 것 같아 만족했다.
전문가님 사무실에 들러 스프레이를 챙겼는데 내가 비싸서 몇 개 사지 못 한 스프레이들이 색깔마다 많이 나열되어있었다. 정말 멋있었다.
작업을 할 공간을 찾으려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 해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냈다. 한 굴다리 옆에 낙서가 있는 벽에 작업을 하기로 했고 전문가님이 나도 해보라고 시켜주셨다. 정말 감사했지만 무슨 감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뜻 그릴수가 없었다.
엄청 땀을 흘리다가 그리기를 시작했고 다솔 작가님이 중간중간 피드백을 해주셨다.
노즐을 누르는 힘조절이나 선을 잘 따는 법 같은 것을 배웠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비싼게 좋긴 좋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다.
색도 다양하고 아무리 가까이서 뿌려도 흐르지 않는다는게 정말 좋았다.
그렇게 내 그림은 끝나고 다솔작가님의 그림이 시작됐다. 정말 멋있었다.
선을 얇게 칠하는 기술이나 그런게 엄청나게 놀라웠다.
4시부터 시작했던 작업은 7시쯤 끝이 났다. 다솔 작가님과 레터링 그리는 법을 따로 배웠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만남이었고 내가 낮을 많이 가려서 아무것도 못 할까봐 걱정했지만 나름 잘 해서 좋았다. 마지막에 싸인을 못 받은 것이 많이 아쉽다.

2018년 9월 25일

경주에 있는 우양 미술관에서 하는 그래피티 : 거리미술의 역습이라는 전시회를 보러갔다.
세 명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그림들이 있었다. 사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 벽에 바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중에 켄지 차이 라는 작가분이 있었는데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동물들을 그리셨는데 색이나 표현하시는게 마음에 들었다.
특히 동물들의 눈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눈동자의 색감이 정말 예뻐서 기억에 남았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냥 멋있고 예쁘기만 했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보였을 때 재밌기도 했다.
스케이드 보드에 한 작품도 있었는데 멋있었다.
보드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다.

2018년 10월 3일

덕산에서 사 온 합판으로 세 번째 작품인 불안함과 두려움, 작게 보이는 자유 작품을 그렸다.
그 때가 전문가님께 스프레이 사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나서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는데
정말 멋있었다. 역시 비싼 스프레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았다.
선도 깔끔하게 나왔고 싹 스프레이와는 달리 선 옆에 가루?들이 묻지 않아서 좋았다.
선도 얇게 표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내가 제일 처음 구상했던 작품이었고 제일 기대했던 작품을 깔끔하게 한 것 같아서 좋았다.

2018년 10월 4일

어제와는 달리 아침이 아니라 오후에 작업을 했다.
'가족보다 가까운' 작품을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대충 하려는 마음이 컸는지 긴장을 안 했는
지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왔고 작품이 다 놓여지지 않았고 비싼 스프레이 두 개 마저 다 써버려
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다. 기분은 바로 바닥을 쳤고 뭘해도 안 될 것 같았다.
페인트로 작품을 덮고나서 긴장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반성을 했다.
다음 날 두 개를 하려고 미리 합판을 하나 더 만들어 뒀다

2018년 10월 5일

알람이 5시 30분쯤 울렸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잤다.
6시쯤 일어나서 내려갔다.
내려가서 작품을 그렸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지만 비를 그냥 맞으며 작업을 했다
비싼 스프레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싹 스프레이로 작업을 했고 역시나 안 좋았다.
선이 두꺼워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잘 나오지 않았다.
비까지 맞으면서 해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다.

2018년 10월 6일

어제 저녁 내가 중간에 너무 졸려서 조금 자고 일어나려고 연우형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연우형이 깨워주지 않아서 알람도 없이 쪽 자고 말았다.
다음 날 7시 반쯤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나갔다. 설상가상 비까지 내렸고 비를 그대로 맞으며

작업을 했다.

마지막 작품인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를 그렸다.

그리는 와중에 작품이 넘어져서 반으로 쪼개졌고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그렸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작품도 별로 좋게 나온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다섯 개의 작품을 모두 마무리하고 마지막 스텐실 작업을 끝내고 작품설명을 붙였다.

작품발표가 첫 번째라 너무 떨렸지만 막상 할 때는 생각보다 떨면서 말하지 않은 것 같아 좋았다.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던 논문이 이제 최종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더 좋아졌다.

2018년 10월 13일

본문에 넣기 위해 내가 본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지금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들이었다는게 실감이 되었다.

즐거운 춘식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많이 참고했는데 소화기에 페인트를 넣어 그래피티 아트를 해보는 등 재밌는 영상이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팁이 담겨있는 영상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레오다브 작가님의 영상은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연예인을 보는 느낌으로 보았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목표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줬던 영상이었던 것 같다. 정말 멋있었고 예뻐다.

2018년 10월 16일

본문을 대충 다 썼다. 이걸 쓰면서 정말 힘들었다.

게다가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기에 조금씩 수정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막막하다.

얼른 끝내고 마음 편히 쉬고 싶다. 발표만 남았는데 너무 떨린다.